

인 사 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름 끝자락의 하루를 여러분들과 함께 보내게 되어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국 불교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조계사 마당에서 ‘무차대회’라는 이름으로 불교와 노동이 만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입니다.

무차대회란 승가와 재가, 귀천, 빈부, 상하에 차등을 두지 않고 남녀 노소 모두가 평등하게 법문을 듣고, 토론하고, 공양을 나누는 불교의 오래된 전통입니다. 이 아름다운 전통을 되살리면서 그 첫 번째 손님으로 노동자 여러분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쌍용자동차의 해고 노동자와 그 가족을 비롯하여, 환경미화원, 학습지 교사, 비정규직 노동자 등 노동의 현장에서 소외받고 힘들게, 그러면서도 용기 있고 꿋꿋하게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의 주인공입니다.

우리는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4월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과 만남의 자리를 가진 이후, 우리는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23번째 죽음은 맞이하고 싶지 않다”는 절규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천도재를 시작했고, 구속수감자 특별사면의 청원을 했고, 바로 며칠 전 조계종 노동위원회를 발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돌아보면, 불교가 사회적 갈등과 아픔을 해소하는데 적극적인 면을 보이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이번에 발족한 노동위원회는 말 그대로, 노동과 관련한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여러분들

과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면서 불교적 해법을 찾아보기 위한 기구입니다. 불교 내에 노동문제를 전담할 상시적 창구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불교의 사회 참여에 대한 커다란 진전이라고 평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무차대회는 그러한 맥락 위에 있습니다. 불교는 노동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고, 노동은 불교에 위로의 손길을 내밀어 함께 만나는, 그런 소중한 자리입니다. 밥과 국과 나물들, 마련한 공양이 조출하지만 맛있게 드시고, 오늘 하루 삶의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웃고 떠들며, 위로받고,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처님이 몸을 나타내어 중생과 고락을 함께 하는 진정한 동사섭(同事攝)의 날이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부처님이 되는 바로 그런 날입니다.

감사합니다.